

갑천생태호수공원-도솔산-유등천 녹색순환축 조성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4584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의자 : 오세길 의원

찬성자 : 강정수, 설재영, 김동성, 정홍근,
김세원, 송용석, 최병순, 김태민,
정능호, 이원배, 박순호, 신진미,
김명현, 함미정, 정인화, 양유환
(16인)

1. 주 문

- 갑천생태호수공원-도솔산-유등천 녹색 순환축 조성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갑천생태호수공원-도솔산-유등천을 하나의 녹색축으로 연결하는 「갑천생태호수공원-도솔산-유등천 녹색순환축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에 앞장설 것을 촉구함.

3. 수신처: 대전광역시장

4. 건의안: 별첨

갑천생태호수공원-도솔산-유등천
녹색순환축 조성 촉구

건의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갑천생태호수공원-도솔산-유등천

녹색순환축 조성 촉구 건의안

기후위기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하며 걷고 쉬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녹색공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산림과 호수, 하천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녹색 인프라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탄소중립 실현,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대전 서구는 갑천생태호수공원, 도솔산, 월평공원, 갑천과 유등천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간이 생활권 별로 단절되어 시민들이 하나의 녹색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솔체육관, 사이클경기장, 변동 화엄사 일원의 기존 산책로는 노후화와 안전시설 부족으로 이용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갑천생태호수공원과 도솔산·월평공원, 내동·변동·도마동 생활권, 유등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갑천생태호수공원-도솔산-유등천 녹색순환축」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전 대표 녹색 힐링 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도솔산과 갑천생태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 조성과 갑천변 및 유등천까지 이어지는 녹색 보행축 구축은 도안권과 기존 생활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녹색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아울러 노후 산책로 정비, 친환경 데크길 조성, 무장애 보행환경 구축, 보안등·CCTV 등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녹색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맨발 황톳길, 족욕장, 숲속쉼터, 야외운동시설, 전망쉼터, 문화 예술공간 등 다양한 체험·휴식시설을 확충하고 걷기축제, 생태체험, 숲해설, 야간경관투어 등 사계절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사업은 단순한 산책로 조성이 아니라 생태환경과 산림, 체육, 문화, 관광,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미래형 도시 프로젝트이다. 시민에게는 건강과 휴식을, 지역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대전에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전략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갑천생태호수공원, 도솔산, 유등천을 중심으로 한 녹색 순환축 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갑천생태호수공원과 도솔산을 연결하는 '도솔 그린웨이(가칭)'을 추진하고, 갑천변과 유등천을 연계한 녹색 보행축을 구축하여 시민 중심의 녹색 힐링벨트를 조성하라.

하나, 도솔산 노후 산책로를 전면 정비하고 친환경 데크 산책길과 무장애 보행로를 확충하는 한편, 조명과 안전시설, 건강·휴양시설을 설치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라.

하나, 도솔산과 갑천생태호수공원, 갑천, 유등천을 연결하는 사계절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걷기축제, 생태체험, 숲해설, 야간 경관투어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여 대전을 대표하는 힐링·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하라.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생태환경, 산림, 체육, 문화, 관광,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도솔산-갑천생태호수공원-유등천 녹색순환축 조성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계별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 녹색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일동